

대학 입시에 대한 성찰

전동렬*

1. 개요

한국에서 대학입시는 초중등 학교의 교육 내용을 규정하는 족쇄가 되었다. 교육은 보이지 않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온통 대학입시 준비에 매달리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아우성 소리만 들린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을 누가 비난할 수 있으랴마는, 한국 사회의 입시 열풍은 한계를 넘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토니 블레어가 영국 수상이었을 때 의회에서 한 연설에서 영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첫째도 교육이고 둘째도 교육이고 셋째도 교육이라고 한 것이 잘 말해준다. 교육은 한 국가 안의 개인에게도 재화 획득을 위한 안정된 수단이자 투자로 여겨지고 있다. 대학 졸업장이 전통적 신분 제도를 대체하게 된 오늘의 사회에서 학력 지향과 교육열 증폭은 필연적인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아무리 교육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특정 대학과 특정 전공 선호도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교육, 즉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는 행위, 즉 입시에 온통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이 입시에 파묻혀 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열된 입시는 온갖 편법과 지역 간 계층 간 불공정 경쟁과 사회경제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사무엘 김의 컬럼비아 대학 졸업논문을 [1] 인용한 최근 보도에 의하면 미국 명문대학에 입학한 한국 학생 10명 중 4.4명이 졸업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것은 교육은 없고 입시 준비만 있는 ‘들어가고 보자’ 주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잘 보여준다.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한국 사회의 입시 과열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교육의 기승에서 잘 나타난다. 학생의 잠재력을 찾아내고 발전시키는 교육은 학교도 어려워하는 일이다. 그런데 영리가 절대 목표인 사교육이 학생의 시험 점수를 단기간에 올리기 위해 반복적인 문제풀이 훈련을 시키는 것 말고는 무엇을 하겠는가. 높은 교육열과 정당한 경쟁에 의해 개인의 능력과 국가 경쟁력이 신장되는 것은 바람직하겠으나, 한국 사회의 이상 교육열과 이에 수반된 입시 과열은 사회경제적 갈등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잠재 능력과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도 되고 있다. 60년대에 시작된 산업화 과정에서는 많이 알고 아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다. 이 시기의 고등교육의 목표는 지식을 전달하고 문제풀이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었으며,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함께 획일적이고 서열화된 대학이 총점 순서로 학생을 선발하여 대량으로 교육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많이 아는 것보다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 방법을 설계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사회에서, 지금처럼 과도하고 비교육적인 한국의 사교육은 어린 학생들의 상상력을 말라죽게 하고, 과외에 지친 어린 학생들은 조로증에 걸려 대학에 갈 때쯤이면 스스로 주도하여 공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거의 잃어버릴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2006년 국제학력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서 한국 학생들이 받은 과학 성적이 7위~13위로 2003년보다 많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과학에 대한 흥미, 학습 동기, 자아 개념 등 선호도가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은 것이 그 증거라 볼 수 있다. 과도한 경쟁 때문에 공부를 더 시키려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 실시되는 사교육이 개인의 능력과 국가의 경쟁력조차 훼손하고 있다면, 지금의 비정상적 입시 상황을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업이다.

제도는 공공성을 표방하지만 개인은 제도 안에서 각자의 이익을 쫓아 행동한다. 개인의 이익 추구가 지나치게 과열되어 제도의 공공성이 무색해졌다는 점에서, 경쟁의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부를 대물림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지역과 계층 간의 첨예한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입시 문제와 부동산 문제는 구조적으로 닮았다. 다른 점이라면 입시가 고등교육을 통한 기대 이익을 위해 장기 투자하는 것이라면 부동산은 비교적 단기 투자라는 점이다. 예전의 모든 정부가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숭한 노력을 했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은, 이 문제들이 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해

결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한국 특유의 입시와 부동산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이해되고 정상화 방법이 찾아져야 한다.

구성원 사이의 배타적 경쟁이 지나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무한 경쟁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 아파트 추첨, 분양가 상한, 대출 규제, 종합세금 등이 부동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라면 학원비 공개, 교사 과외금지, 학원시간 제한, 중등학교 평준화 등은 입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다. 그러나 교육에는 전국민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많은, 그리고 필사적인 이해 당사자가 얽혀있는데다 사교육이 대법원에서 국민의 기본 권리로 인정받은 이상 입시 문제를 제도의 개선만으로 해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교육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마찬가지로 제도의 보완이 아니라 시장 원리를 적용하여, 다시 말해 공급을 확대하여 입시 문제를 해소하고 수월성 교육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이하 특목고)와 중학교의 확대, 군 단위로 신설될 기숙 고등학교가 그것이다. 그러나 분별없는 주택 공급의 확대가 미분양 주택은 양산하면서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안되고 있듯이, 분별없는 특수목적 중·고등학교의 확대는 사교육을 더 부추기고 국민을 특수목적 학교와 보통 학교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도 가지고 있다.

특수목적 학교란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의미하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오히려 실업계 고등학교를 특목고로 학교로 볼 수 있지, 특수목적 인문계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 영재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등은 진정한 의미의 특수목적 학교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 학교에 들어가려는 진짜 이유가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명문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목고 입시에 대비하여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심지어는 특목고 학생까지도 끊임없이 받는 사교육 피라미드의 정점에는 바로 대학 입시가 있다.

병목이 대학에 있는 이상, 특수목적 중·고등학교의 공급 확대는 입시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처방이 아니다. 특수목적 중·고등학교의 확대가 개인의 능력

발휘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 양성 방법도 아니다. 특수목적 중·고등학교가 공평하게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아무리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사교육은 이것에 대비할 것이다. 타고난 잠재력과 사교육의 반복 훈련 효과를 학생 선발 과정에서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떤 선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사교육이 지금까지처럼 비정상적으로 입시에 개입하는 한 학생 선발의 오차는 불공정 경쟁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카이스트의 총장이 입시 요강을 발표하지 말라고 했겠는가. 처음에는 특목고 졸업생이 낮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이 더 잘 하게 된다는 어느 자연대학의 자료는 특목고의 학생 선발에서 사교육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다.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받은 혹독한 훈련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이 공부하는 이유라고 오해하게 된 학생이 더 이상 상급학교가 없는 대학에 가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입시가 사교육 때문에 혼탁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금지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지금까지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수단을 동원했지만 사교육비 부담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8년에는 상반기에만 15조원이 지출되었다. 게다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고등교육에의 기대 이익은 커지고 이와 함께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사교육이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차대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이전의 세대보다 교육을 많이 받고 소득이 높아져 자녀 교육에의 관심이 대단히 높다. 아시아 국가에는 방과 후 학원이 예전부터 보편적이고, 미국에서도 조기에 시작하는 특기 교육과 함께 2005년부터 대학 수학능력 시험(scholastic aptitude test, SAT)이 어려워지면서 최근에는 부유층 자녀를 중심으로 SAT 준비를 위한 과외가 유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프랑스어와 영어 바칼로레아 시험을 위한 사설 학원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과외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보충 수업이고, 시험 점수는 대학 전형에서 학생을 평가하기 위해 참고하는 자료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점수 순서로 학생을 선발하는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 한국의 사교육은 보충 수업이 아니라 선행 학습이고 공부 잘 하는 학생도 받는 보강 수업이다.

자식을 위한 교육 투자를 비난할 수 없고 사교육이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학부모가 사교육에 거는 기대는 거의 맹목적이다. 한국의 학부모는 남

에게서 배우는 시간이 길어야 입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과외공부가 없는 나라인 미국에 가서도 학원을 만든 것이 한국의 부모들이며, 학원을 만들기 어려운 곳에서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에게라도 과외공부를 시켜야 마음이 놓이는 것이 한국의 학부모들이다. 한국 학부모들의 이러한 열성은 랜디 뉴먼이란 음악 감독이 최근에 만든 노래의 주제가 되었다. “한국 학생들이 정말로 당신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가, 한국 학생들은 다만 미친 듯이 공부할 뿐이야, 부모들이 그렇게 시키니까.”

한국인들이 시험에 매진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과거시험의 전통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시험에 붙는 것은 신분 상승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좁은 영토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다보니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심리가 생존 본능이 되었을 수도 있다. 입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직원, 국가 공무원, 교사까지 시험으로 선발하는 시험 공화국에서는 대학생들조차 학원에 다니면서 취직을 위한 시험 준비에 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유 없이 비싸도 명품이라면 대접받는 한국에서 일류 대학 졸업장은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 없이 명품 브랜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지나치게 심한 학벌 편견이 한국의 부모들이 대학입시를 위해 자녀의 많은 것들을 희생시키도록 내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상위 대학을 없애거나 대학을 평준화하는 것이 학벌 편견의 처방은 아니다. 교육을 통한 사회 정의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통한 개인의 능력과 국가 경쟁력 신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각 나라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통에 따라 발전된 교육 체제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는 오랜 전통의 명문 대학이 있어 전세계에서 지원자들이 몰려가고, 프랑스는 대학을 분야별로 특화했으며 지도자 양성을 위한 별도의 국립 학교가 있어서 고등학생의 20~30% 정도가 국립 학교에 응시하기 위해 철학 논술 시험을 준비한다. 독일은 고등학교에서 높은 수준의 실업 교육을 실시하는 대신 대학에 진학하는 인원은 제한한다. 일본은 입시 제도가 한국과 비슷하고 입시 경쟁이 치열하지만, 세계적으로 알려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전국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으므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한국도 조건 없는 평준화를 주장하여 높은 교육열을 억압할 것이 아니라 전통과 문화에 맞는 교육 경쟁력 확보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수요 공급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입시 문제는 공급자인 대학이 수요자인 학생을 성적 순서로 선발하는 일방 통로만 있기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권리를 가진 것처럼 학생도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는 것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길이다. 학생이 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지금처럼 획일적인 대학들의 서열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다시 말해 대학을 분야별로 특성화하고 좋은 대학을 지역마다 고르게 분포시켜야 한다. 이것은 공급의 확대와는 다른 개념이다. 지금도 전국에 약 200개의 대학이 있지만, 입시 과열의 중심에 있는 대학은 몇 개 되지 않는다. 대학 서열에서 상위에 있는 몇 개의 대학과 안정된 직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몇 개의 전공학과를 놓고 전국이 입시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것이다. 대학은 성적 순서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학생은 자신의 성적이 얼마가 되어야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맹목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특화된 우수 대학이 지역마다 있어서 학생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고,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지금의 입시 제도를 타파하면 대학입시 부작용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 고착된 서열 구조 안에서 대학들은 경쟁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공별로 특화된 다수의 우수 대학이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것은 경쟁을 통한 한국의 대학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대학 사이의 경쟁은 입시 과열과 부작용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대학 서열을 깨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학 서열은 그것의 존재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서열을 뒤집겠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대학이 몇 개 없을 때 생긴 서열이 5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은 이유는 대학 지원자가 늘 넘쳤기 때문에 상위 대학은 노력할 필요가 없었고 하위 대학은 경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대에 설립되었지만 특성화를 통해 짧은 기간에 역사가 더 긴 대학을 제치고 상위로 올라간 대학도 있다. 그러므로 대학 서열을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서로 경쟁하여 서열을 뒤집겠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 지역 대학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좋은 대학은 돈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돈은 시설을 해결해 주겠지만 시설을 움직이는 제도와 구성원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도 무용지물이다.

지역의 우수 대학은 인구 분산에도 효과가 있다. 도시를 싫어하지만 자녀 교육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행정 도시를 만들어 강제로 이주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좋은 학교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찾아가지 않겠는가. 뉴욕의 빈민가에 위치한 컬럼비아 대학이 우수한 교수를 유치하기 위해 대학 부근에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만든 것이 좋은 사례다.

우수한 대학이 지역마다 생겨서 학생의 대학 선택권이 높아지더라도, 대학의 전형 기준에 따라 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은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학전형 방법은 중등교육이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종합전형, 다시 말해 학력과 인성의 전인적 판단만이 대안은 아니다. 한국적 상황에서 복잡한 종합전형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지역과 계층의 차이에 의한 교육 기회의 불균등을 심화시켜,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기회가 봉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대학은 그동안 학생을 선발하는 권리를 놓고 줄을 당겨왔다. 정부는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워 입시를 객관적으로 관리하는데 힘을 써왔고, 대학은 어떤 자질을 갖춘 학생을 뽑아서 어떤 학생으로 키워내겠다는 철학은 없이 학생 선발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주장해왔다. 지금의 입시 과열과 그로 인한 부작용은 입시가 중등교육에 주는 과급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입시의 객관성만 강조해온 관료와 대학의 기계적 전형 제도의 산물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학에 일단 들어가 보자’ 주의는 획일적인 대학들이 철학 없이 기계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다 입학한 학생은 거의 대부분 졸업시키는 느슨한 학사 관리에서 비롯된다. 간단히 말하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쉽고 나가는 것은 어려워야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중등 교육까지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한국의 입시 과열과 그로 인한 사회 갈등은 입시 제도와 교육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입시 제도의 개선과 함께 사회의식의 변화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소득 증가, 자유로운 여행, 정보 시대를 계기로 한국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기대와 욕망은 세계 일류 수준이 되었으나 눈높이에 맞는 국내 대학은 별로 없는 것이 한국의 입시를 병적으로 뜨겁게 만든 발단이다. 따라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중등교육을 정상화

하고 사교육의 개입을 억제할 수 있는 대학 전형제도의 모색과 함께 우수 대학을 지역마다 만들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만큼 학생이 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엄격한 학사 관리를 통해 대학 졸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국가는 지역과 계층을 막론하고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할 의무와 모든 지역과 계층의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계층 이동과 복지의 구현은 교육의 대단히 중요한 역할일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인재 발굴의 기회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도 도를 넘는 사교육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배타적 무한 경쟁이 어린 학생들의 잠재력을 말살하고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임을 인식하여, 지나친 욕심을 자제하고 학벌에 대한 맹목적 편견을 버려야 한다.

2. 현행 대학전형 제도

2.1 대학 입시 제도의 변천

1945년에 대학별 단독고사로 대학 입시가 처음 시행된 후 지금까지 9번이나 전형 방법이 바뀌었다 [2]. 대학별 단독고사와 국가가 관리하는 연합시험이 번갈아 이루어진 이 과정은 한마디로 정부와 대학의 학생 선발 주도권 대립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고등교육의 수요가 팽창하면서 입시 부정이 발생하자 정부는 공정성을 앞세워 대학 입시에 관여했고, 대학은 자율권을 내세워 대학이 만든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본고사가 대학 주도라면, 정부 주도는 사교육 규제, 본고사 금지와 정부가 관리하는 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으로 대변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입시를 돌아보면, 정부 주도는 객관적인 입시 관리에 치중한 나머지 교육 현장의 현실과 입시의 당사자인 대학과 국민의 요구를 간과했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의도했던 중등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억제를 성취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대학 주도의 본고사도 대학에 따라 어떤 능력을 가진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겠다는 철학이 없이 획일적인 시험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을 주입식 문제풀이 훈련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다. 정부와 대학의 입시 주도권 경쟁은 선발의 공정성과 선발의 자율성 사이에서 대학 전형제도가 표류하게 만들었고, 졸

업생의 대학 입학률이 중요한 교육 목표인 중등교육에 지장을 초래했다.

2.2 수학능력시험

수능시험은 국가가 주도하는 입시를 대표한다. 수능시험 이전에 실시되던 학력고사는 암기와 문제풀이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과 사교육을 초래한다는 판단 아래, 정부 기구인 교육과정 평가원이 관리하는 수능시험을 1993년부터 실시했다. 수능시험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학업 적성 시험인데, 현행 수능시험은 학업 적성뿐만 아니라 교과서 내용에서 출제되는 학력고사의 성격도 섞여있는 모호한 성격의 시험이 되었다 [3]. 무엇보다도 대학들이 수능시험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관행 자체가 현행 수능시험의 성격을 수학능력 측정보다 학력 측정 시험으로 간주하게 만든다. 통합교과 소재를 바탕으로 지문이 긴 문제로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수능시험 문제의 성격은 교과별 수업에 익숙한 교사와 학생들에게 생소한 것이어서 수능시험 실시의 의도와 반대로 사교육은 오히려 증가했다. 지문이 긴 것에 비해 풀이에 주어진 시간은 짧아서 지문이 긴 문제를 내는 취지와 맞지 않고, 나이가 많은 재수생의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여 재수를 부추기는 결과도 초래했다. 그리고 수능 문제가 무작위로 선정된 출제위원들에 의해 짧은 기간의 감금 상태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변별력 조정이 어렵고, 학생의 수학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좋은 문제보다는 정답 시비를 피하기 위한 문제와, 어떤 유형의 문제가 이 목적에 맞는지 애매하지만, 학원에 다니지 않고 학교 공부만 한 학생도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수능시험의 취지에 적합한 문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수능시험이 원래 의도한 기능을 발휘하려면, 대학과 전공마다 수능시험 성적과 대학 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어느 대학에서 어떤 전공과목을 공부하려면 수능시험 성적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자료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고, 총점 순서로 학생들의 상대 서열을 정하는 데만 수능시험을 사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수능시험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비교 우위가 높아져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는데다 수능시험 문제의 유형이 고등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므로, 사교육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수능시험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공부 외에 사교육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은 수능시험 문제가 대학에서 전공과목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학력과 적성을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고사를 요구하고 있다.

수능시험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의 질보다는 시험의 공정한 실시가 더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능시험은 정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학생을 뽑아서 가르칠 당사자인 대학 연합체에서 주도하고, 수능시험 성적은 수험생을 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할 수 있는 학력과 적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 대학 본고사

대학 본고사 문제는 중등학교 교육과 입시의 파급 효과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전체 교수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출제위원에 의해 단기간에 감금 상태에서 만들어지므로, 어떤 문제가 그 대학의 교육철학을 반영하며 학생이 그 대학에 들어와서 전공과목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만들어진다. 또한 출제위원들은 대학 교수의 관점에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본고사 문제는 대체로 어렵고, 이 때문에 학생들이 사교육 찾게 되기도 한다. 본고사 문제는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학을 복수로 지원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고등학생의 학력 저하와 정부 주도의 수학능력시험에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구술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대학도 있는데, 면접관 앞에서 교과내용 문제를 풀게 한다는 점에서 약식 본고사라 볼 수 있다. 구술 면접시험과 더불어 소위 이공계 논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논술 문제의 소재가 이공계 교과 내용이고 정답이 있는 논술 문제라는 점에서 주관식 본고사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구술 면접시험과 이공계 논술에서 우려되는 것은 이런 유형의 평가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없다는 점이다. 대학 입시를 위해 고등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과목을 평가하면, 최근에 문을 열기 시작한 소위 이공계 논술학원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본고사의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훨씬 심각할 것이므로

본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의 무조건적 자율보다 중등학교의 교육 정상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학마다 다른 본고사를 실시하면 중등학교는 본고사에 대비하는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어려운 본고사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학생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사를 부활할 것이 아니라 수능시험을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전인교육의 강조가 학력은 무시되어도 좋다는 신호로 오해되면 곤란하다.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력이다. 학생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데다 누구든지 다양한 매체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이 시대에 학교 교육이 전인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으므로 전인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대학이 지금 수능시험에서 걱정하는 것은 학력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학의 이런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능시험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을 교육시킬 당사자인 대학이 연합하여 수능시험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어떤 수능시험 문제를 만들더라도 그것이 학생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 위한 것이 되면 역기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대학 연합체가 수능시험을 운영하더라도 전형을 위해 수능시험 성적의 합리적인 활용 방법을 찾아야 한다.

2.4 종합전형

대입전형 기준은 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 중등학교는 대학 입학이 아니라 본연의 교육 목표를 위해 존재하지만 학생을 위한 대입 준비를 무시할 수 있는 중등학교는 없다. 그러므로 대입전형 기준은 중등교육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데 기여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중등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가장 높게 성취한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기 유리하도록 정해져야 한다.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별 본고사로 수험생의 학력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쉬운 전형 방법이겠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력을 측정하는 필답 고사인 본고사나 수능시험만으로 중등교육의 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없다. 학력은 중등교육의 중요한 목표지만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학력 외에 인성을 비롯하여 학생의 됴됨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 방법은 대학 입시가 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바람직한 방향이다. 종합전형에서는 내신 성적과 수능시험 성적 외에도 과외활동, 특기, 봉사활동, 추천서, 수상 실적, 면접 등의 전인적 요소를 평가한다. 학력 위주의 평가에서 전인적 평가로 전환하여, 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겠다는 종합전형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행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소위 전인적 평가 요소가 학력보다 더 심하게 학생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의 인상을 보고 인성을 판단하고 미래의 잠재력을 예측할 수는 없으므로 전인적 요소도 결국 교사가 작성한 학생에 대한 기록과 학생이 생산한 산출물에 근거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외활동, 특기, 봉사활동 등의 전인적 요소는 학력보다도 더 부모의 관심과 가정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대학이 전인적 요소를 정성적 자료로 활용하지 않고, 공신력을 핑계로 정량화하고 학력 점수에 더하여 총점으로 합격을 결정한다면, 한국 상황에서 전인적 평가 요소에까지 학부모와 사교육의 개입이 심해질 것이다. 인성 발달을 위해 권장되는 과외활동, 봉사활동, 특기 계발이 전인적 평가의 대상이 되자마자 대학입시를 위한 도구로 변질되는 것이다.

이런 조짐은 벌써 나타났다. 최근의 사례를 보자. 어떤 특목고가 전인적 평가를 위해 영재성을 측정하여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토렌스 창의성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겠다는 학원 광고가 인터넷에 나타났다. 미국의 토렌스가 창안한 도형 창의성 검사는 간단한 도형을 보여주고 그것들이 상기시키는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인데, 한국에서도 영재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 왔다. 토렌스 검사는 정답이 없지만 채점자들이 사용하는 기준이 있다. 만일 수험자들이 채점 기준을 알고 검사를 받는다면 자신의 창의력과 상관없이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 자명하다. 이것은 토렌스 창의성 검사를 한국에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비신사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다. 일부 지역의 초등학교 반장 선거가 전에 없이 과열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선거용 포스트를 만들어주고 연설문을 대필해 주는 전문업체가 있는가하면 반장 선거 전략을 소개하는 책에다 백화점 문화센터에는 반장에 출마하는 자녀를 가진 학부모를 위한 강의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이처럼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 열을 올리는 것은 역시 입시 때문이다. 당장은 내년에 개교하는 국제 중학교 입시에서 반장 경력이 있으면 가산점

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대학 입시에서도 지도력이 있으면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그것이다.

이런 소동을 일부 지역, 일부 계층의 일이라고 간과할 수 없다. 전형 요소가 다양해지고 전형 방법이 복잡해질수록 수험생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대학입시 준비에 큰 영향을 발휘할 것이므로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는 줄어들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은 더 어려워지고 교육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증가할 것이다. 종합전형을 위한 전인적 요소의 평가는 이런 역기능을 감안하면서 실행안을 만들어야 한다.

2.5 평가의 공정성

전인적 평가라고 하지만 우리는 내신 성적, 수능시험, 과외활동, 수상경력, 봉사활동, 면접, 심지어 추천서까지도 점수화되어 총점으로 선발하고 있다. 교과적 요소와 함께 비교과적 요소를 전형 자료에 포함하여 전인적 평가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 자료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학이 모든 전형 자료를 정량적인 점수로 변환하는 것은 입시의 대외적 객관성 때문이다. 전인적 요소를 정량화 할 수 있을까. 미국의 사립대학은 비교과 자료를 중요한 평가 자료로 이용한다. 뉴욕 타임스 기자인 자크 스타인버그가 1999년에 8개월 동안 미국의 사립대학인 웨슬리언 대학의 입학 사정 절차를 가까이서 관찰하고 작성한 소설 형식의 보고서인 ‘문지기’에 다음 내용의 글이 있다 [4].

렐프는 웨슬리언 대학의 입학 사정관이다. 입학 사정관들은 각자 지원자의 기록을 검토한 다음 위원회에서 투표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한다. 지원자 중에 베카란 학생이 있었는데, 학생회장 경력과 함께 모든 기록이 우수했다. 그러나 친구가 준 마리아나를 받은 것 때문에 하루 정학을 받은 기록이 있어 위원회에서 불합격으로 처리되었다. 렐프는 이를 안타깝게 여겨 다음 날 입학처장에게 베카를 다시 고려할 것을 건의하러 가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입학처장에게 위원회 결정을 번복하여 베카를 합격시키자고 하면 아마 베카 대신 불합격 시킬 다른 두 학생을 골라 오라고 하겠지.” 입학처장은 렐프의 건의를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만, 며칠 뒤에 처장이 베카를 대기자 명단에 넣는 것으로 렐프의 체면을 살려준다. (참

고로 웨슬리언 대학의 2000년도 경쟁률은 10:1이었다. 그리고 아이비리그 대학의 한 입학 사정관에 의하면 선발 오차, 즉 입학한 다음 대학 성취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이 약 10% 라고 한다.)

이 일화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한국의 대학들이 채택한 종합전형은 미국 사립대학의 전형 방법을 참고한 것인데, 시행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 미국 대학의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SAT 1과 전공 적성을 평가하는 SAT 2 시험 성적, 논술과 각종 비교과 자료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에서 입학 사정관이 지원자의 자료를 각자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소신에 따라 투표로 지원자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할 수 있을까. 위원회에서 불합격으로 결정한 지원자를 입학 사정관이 합격시키기 위해 입학처장과 타협하는 것이 가능할까. 미국 대학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사회가 대학의 전형 절차가 공정하다고 믿고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권위는 강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뢰에서 쌓인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한국 현실에서 대학이 투표로 학생의 당락을 결정할 정도의 권위를 갖추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다.

지원자의 교과와 비교과 전형 자료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려면 이 자료들이 지원자가 대학에 들어온 다음의 성취도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충분히 분석해야 한다. 우리 대학에는 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교과와 비교과 전형 자료들을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입학 사정관도 아직 없다. 그러므로 미국 대학 식의 종합 평가가 지금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3. 입시와 사교육

3.1 사교육 상황

2008년 상반기에만 15조원의 돈이 사교육에 지출되었다고 한다. 한국의 사교육은 외국 자본도 군침을 흘리는 투자 시장이 되었다. 사교육도 자본화되어 양성 사교

육을 위한 건전한 교육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5]. 그러나 공교육이 담당하지 못한 영역의 자기 계발을 통한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지금처럼 대학입시를 위한 악성 사교육에 지출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한국 경제의 확대재생산에 기여하는 건전한 소비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에는 없는 사교육이 없다. 어떤 것이든지 전형 요소로 발표되면 바로 사교육이 시작된다. 4살 때부터 시작하는 창의력 학원, 독서 학원, 수능시험 학원, 보습 학원, 의학, 법학 전문대학원 입시 학원, 교사 임용시험 학원, 군 특기병 학원, 공무원 시험 학원, 논술 학원, 과학 올림피아드 학원, 영재 학원, 미국 대학 SAT 학원, 미국 대학 에세이 학원, 미국 법대 준비 학원. 모든 사교육이 나쁜 것은 아니다. 공교육이 담당하지 못하는 개인이 자아를 계발하기 위해 찾는 사교육은 권장되어야 하는 양성 사교육이다. 문제는 공교육을 흔들어대고 선발의 공정한 규칙을 깨는 악성 사교육이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디자인 학교의 교장이 한국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두 번 놀란다고 한다. 처음에는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두 번째는 모두들 똑 같아서. 미국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한국 학생들이 내는 에세이도 학원에서 많이 도와준다고 한다. 이런 사교육은 입시라는 경기의 규칙을 깨는 행위다. 따라서 도를 넘은 한국의 사교육은 한국 학부모들의 공공의식 부재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교육이 학력 증진과 입시에 효과가 있는가? 가정환경, 타고난 우수함 등 개인에 내재된 변수를 배제하면, 다시 말해 사교육을 받기 전에 학생이 보인 능력을 감안하면, 사교육이 대학 진학에 주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한다 [6]. 강남의 유명 학원 강사도 “강남의 학원에 다녀서 대학 진학에 효과를 보는 학생은 10% 내외인데, 이들도 학원에 와서 동기가 생겨 잘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원래 학교에서 잘 하던 학생들이다. 학원들이 이 학생들만 선전에 이용하는 속임수를 쓴다”고 했다 [7]. 그런데, 학교에서 잘하는 학생은 학원에 가지 않아도 대학에 들어가는 데 문제가 없을까. 문제는 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도 학원에 안가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안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것은 한국의 사교육이 학교 공부가 미진한 학생을 위한 보충 학습이 아니라, 학교 공부가 우수한 학생도 하는 보강 학습이자 선행 학습이기 때문이다. 다른 학생들이 전부 사교육을 받으니 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도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여기

에다 학생들이 학원에서 미리 배우고 오니 학교의 교사는 가르칠 것이 없다는 악순환도 있고, 교사가 책임을 다 하지 않을 때도 있다. 게다가 수능시험이 끝나면 학교 교사가 아니라 학원 강사가 언론에 나와 문제를 분석하고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현실에서 보듯이 학부모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입시 지도보다 학원의 입시 정보를 더 신뢰하며, 남들이 다 보내니까 내 자식도 보내야 한다는 불안함도 가지고 있다.

학년에 관계없이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가는 것이 한국의 아이들이다. 학원은 한국 아이들의 하루 생활에서 필수 과정이 된 것이다. 앞에서 예를 든 PISA 검사에서 투입된 공교육비에 비하면 한국 학생의 수학, 과학, 읽기 성적은 대단히 효율적이라고 한다. 학생들의 PISA 성적이 높았던 것이 오로지 학교 공부 때문이었을까.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을 내버려 두는 교사가 많다는데, 학원에서는 학생이 지각하거나 숙제를 하지 않거나 엎드려 자면 바로 부모에게 연락하고 조치를 취하므로 부모가 학교보다 학원을 더 신뢰한다는 말을 들으면 걱정이 된다. 사교육비와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한국 학생의 PISA 성적은 절대로 효율적이 아니다.

사교육의 증가는 세계적 현상이다. 미국의 예를 보면 90년대에 들어서 사교육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이차대전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교육을 많이 받았고 경제력이 좋아서 자식을 위한 교육열이 강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교육은 대부분 자기 계발을 위한 특기 교육이다. 그러나 최근에 중상류층 학생을 중심으로 SAT 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15% 정도 증가했는데, 이것은 SAT 1에 글쓰기, 고급 독해, 대수학이 추가되어 시험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SAT를 위한 사교육은 한국에서처럼 과열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SAT 성적을 입학 전형의 한 요소로 참고할 뿐이지 한국에서처럼 수능시험 성적으로 상대적 서열을 매겨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SAT 과외는 선행학습이 아니고 학교 수업을 보완하는 보충학습이다.

3.2 영재교육과 사교육

영재교육이 유행하고 있다. 영재 교육은 우수한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여 잠재력

을 발현시켜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국가는 이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려고 한다 [8]. 한 사람이 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 한 명의 영재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영재교육에서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누구를 대상으로 선발하는가이다. 영재 교육 대상자는 지금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 아니라, 영재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학생이다. 미래에 발현될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절대 방법은 물론 없으므로, 다양한 요소를 동원해서 최대한 추측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별을 위해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물론이고, 산출물, 영재성 검사, 교사의 추천서, 학생의 부모의 추천서, 심지어 학생 자신의 추천서까지도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9].

그런데 한국에서는 본말이 전도되어 영재교육은 특목고와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받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영재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교육청과 대학 영재교육기관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유행하고 있고,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10]. 영재교육기관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시대회 학원 등 다른 학원에도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고, 영재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들은 팀을 만들어 입시와 사교육에 대한 고급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영재교육이 끝날 때쯤이면, 학부모는 자녀를 명문 대학에 보내기 위해 내신과 수능시험 점수를 올리는 공부를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경시대회에 몰입하여 상을 받게 할 것인가의 두 전략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다. 한국에서 영재교육은 영재교육이 아니라 길고긴 대입 장정의 시작이다.

유명한 학원에서 보낸 특목고 입시 설명회 초대장에 참가 대상자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되어있다. 고등학교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모임이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둔 부모를 위한 것이라니. 특목고에 들어가려는 이유가 대학 입시 때문임을 고려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하라는 것이다. 특목고를 설립한 취지가 높다고 해도 상황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전개된다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라는 것은 이때부터 영재학원에 다니면서 영재교육기관 입시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영재교육이 이렇게 변질된 것은 잘못된 영재 선발 방법도 일조했다. 한국의 대부분의 영재교육기관은 학교 성적과 무관하게 영재성이 있어 보이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학교당 몇 명 이내에서 추천을 받아 다음과 같은 종류의 문제를 풀게 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8] (이 문제는 특정 영재교육기관의 기출 문제가 아님).

트럭 위에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12개 실으려고 한다. 트럭의 짐을 싣는 공간은 앞뒤 3 m, 좌우 2 m의 공간이며 짐은 최대 2 m 높이까지 쌓을 수 있다. 상자 하나는 가로 세로 1 m이고 높이는 60 cm 이다. 트럭의 균형을 위해 짐은 좌우 대칭으로 실어야만 하고, 모든 상자는 서로 붙어있어야 한다. 상자를 여러 층으로 쌓을 때는 아래층의 상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모양으로 쌓을 수 있다. 상자는 전부 몇 가지 모양으로 쌓을 수 있는가? 트럭의 앞뒤를 구분하여 생각하라.

영재교육기관이 이런 종류의 문제로 시험을 치게 하고 그 점수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탓도 있다. 적은 예산과 인원으로, 더구나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수백 명의 지원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교육기관의 편의를 위해 단 시간에 시험으로 영재교육 대상 학생을 선발한다면, 학생들은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에 갈 수 밖에 없다. 학원은 학생들에게 선행 학습을 시키고, 이 학생들이 영재교육기관을 거쳐 특목고에 들어가서 각종 경시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고, 그 실적으로 대학에 가는 것이다. 경시대회에 나오는 문제는 수준이 높으니 학원에서는 선행 학습을 시킨다. 어떤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학원에 다니면서 고된 반복 훈련을 견디어내고 훌륭한 성적을 냈다면 그 학생은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조기 훈련이 20년 뒤에 그 학생에게 줄 부정적 영향이다.

학력 시험에 크게 의존하는 지금의 영재 선발 방법을 영재교육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선발 방법으로 바꾸어야 한다.

3.3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사교육

특수목적 학교는 졸업 후 사회 진출에 필요한 특수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뜻인 것 같은데, 지금 특목고는 특정 과목을 조금 더 가르치는 것 외에는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니 특목고라고 부르기 어렵다. 외국어 고등학교는 더욱 그러하다. 특수 교육보다 대학 준비 과정으로서의 역할이 더 커진 특목고의 위상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특목고 입시 때문에 생기는 사교육의 폐단이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부모가 특목고 입시 설명회에 초대되는 예에서 보듯이, 초등학생 때부터 받는 선행학습은 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특목고 입시에서는 영재교육기관에 다닌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는데다, 영재교육기관에 다니면서 특목고 입시 준비를 일찌감치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영재교육기관 전형에 대비해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소위 영재학원은 실상은 특목고 입시를 위해 있는 것이다. 과학 고등학교 입시에는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은 학생에게 주는 가산점이 있는데, 이 때문에 중학교 과학 경시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이 많다. 경시대회가 과학에의 관심을 촉진하는 좋은 역할도 하지만,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 위주의 사교육을 받는 폐단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경시대회에는 교과서보다 수준이 높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경시대회 참가를 위해 대부분의 학생은 학원에 가서 선행학습을 한다. 그리고 이 학생 중의 일부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다음에도 계속 학원에 다니면서 국제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를 하는데, 대표로 선발되어 국제 대회에 가서 상을 받으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부터의 대장정이 막을 내린다. 드디어 원하는 국내 대학이나 외국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학 국제 올림피아드에서 상을 받은 학생 중의 많은 수가 수상 경력을 이용하여 의과대학에 진학한다. 2008년에도 물리, 화학, 생물 등 국제 과학 올림피아드에서 상을 받은 학생 중의 46%가 의과대학으로 진학했다. 어려서부터 힘들게 학원에 다닌 이유가 과학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정된 직업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다.

이처럼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보다는 어려서부터 조직적인 훈련에 의해 만들어진 이 학생들이 특목고를 거쳐서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훈련을 이겨낸 이 학생들이 우수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의 훈련에 의해 만들어진 이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잡초처럼 자연스럽게 자라

서 우수해진 학생들의 창의력, 상상력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창의력은 머리를 쥐어짜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다. 과학 고등학교가 설립된 지 25년이 되었는데, 아직 일반 고등학교 출신보다 탁월하게 뛰어난 과학고 출신 과학자는 없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인지도 모른다. 과학에 재능이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도 많다. 안타까운 것은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과학에 재능있는 학생은 과학 교육에서 소외되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평준화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월성 교육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정부는 특목고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급을 확대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특수목적에 위한 학교가 소수 있을 때는 특수목적 학교라고 부를 만 하다. 그러나 일반 학교와 다른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특혜도 많이 받는 학교가 군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로 많아지면 더 이상 특수목적 학교로 보기 어렵다. 특목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모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 한다면, 특목고가 아니라 대학 진학 준비학교에 불과해질 것이며, 지금은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는 특목고 입시 열풍이 군 단위까지 불 것이다. 대학입시가 중등학교의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어야 하듯이 특목고 입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3.4 고등학교 내신 평준화

고등학교별 학업 성취도, 즉 학교별 내신 성적은 대학이 전형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대학 전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공교육 정상화로 사교육을 억제하려면 중등학교도 경쟁을 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전국 학력평가, 수능시험 등의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성적 공개가 입시 위주의 수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성적 공개가 중등학교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여지는 있지만, 학교별 학업 성취도가 공개되지 않는 것을 기화로 적당히 가르치겠다는 교사가 있어서도 안된다.

학생의 원래 능력을 고려하면 대학 입시에서 사교육의 효과는 별로 없다고 했다

[6].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부모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소득이 높은 가정의 학생이 대학 진학에 유리하며, 특목고 입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11]. 따라서 특목고, 그리고 특목고를 거쳐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이 사교육 때문이 아니라면 부모에 의한 교육 환경 효과라고 볼 수 있겠다. 사교육보다 지역과 계층의 차이에 의한 교육 기회의 불균등이 더 심각한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학교의 학업 성취도의 저조가 지역과 계층의 불리함에 의한 교육 기회의 불균등 때문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평준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이 내신 평준화의 혜택으로 대학에 들어간다 해도 공부를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학이 교육 기회의 불균등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낮아진 학교의 학생들을 배려하려면 소외계층을 위한 입학 정원의 할당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들이 대학에 들어온 다음에도 다른 학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누리지 못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대학 입학뿐이 아니라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도 주어야 하는 것이다.

3.5 공교육과 입시

대입전형 제도는 중등학교가 입시 준비 기관에서 벗어나 중등교육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중등학교는 전인교육에 힘써서 학교가 학원과 다름을 보여주어야 하며, 대입 전형에서 비교과적 요소의 평가는 학생의 산출물에 의존하므로 학교가 독서와 글짓기, 과외활동, 봉사활동, 지도력 함양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전인교육이 교과 공부를 소홀히 해도 좋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학력으로 지원자의 서열을 정해서 선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지원자가 대학 공부에 필요한 기본 학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대입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임에 틀림없다.

교사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입전형이 중등교육을 위해 합리적으로 개선되더라도 중등학교 교육의 성패는 교사에 달려있다. 학부모들은 학교보다 학원에서 하는 입시 설명회를 신뢰한다. 수능시험이 끝나면 고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대입 학원 강사가 언론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점수를 예상한다. 세대가 학교 교

사보다 학원 강사를 입시 전문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에는 입시가 학력 위주로 진행되어 온 탓도 있지만, 교사의 책임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중학교가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진학하기를 원하는 학생이 소수이므로 따로 입시 준비를 해 주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학원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특목고가 교사 개인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하면서 특목고 지원 학생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해 봉사한다는 교사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 정책에 대한 교사의 사적 견해와 교사의 책임 완수는 다른 문제다. 교사는 학생들이 교육 받을 권리를 존중하여 학생들의 대학 입학 준비에 충분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교사들이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사교육이라는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4. 대입전형을 위한 제안

4.1 대학의 교육 철학을 반영한 전형

입시 부조리는 전형 방법의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와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식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합리적인 대학 전형을 기대할 수 있다. 둘 중에서는 공급자인 대학이 먼저 변해야 하며, 이것은 대학마다 고유의 교육 이념을 천명하고 지역별 분야별로 특성화하는 노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철학이 없고 특성이 없는 획일화된 대학으로는 입시뿐 아니라 고등 교육의 수월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 대학의 예를 보면, 대부분의 학과가 홈페이지에 교육 목표와 함께 어떤 자질을 갖춘 학생을 신입생으로 원하며 어떤 전형 절차를 적용하는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자. 대부분의 미국 대학 건축과는 신입생 전형을 위해 미술과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데, 포트폴리오를 요구하지 않고 수학, 영어, 과학 성적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곳이 있다. 유명한 건축가를 배출한 그 학과의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 “우리 경험에 의하면 포트폴리오보다 수학, 영어, 과학을 잘 하는 학생이 건축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높

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건축과는 입학생의 전형 자료와 대학 성취도, 졸업 후 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오랫동안 분석하여 그것을 신입생 전형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례는 기계적인 총점 순서로 지원자를 평가하고 선발해온 한국 대학의 입시 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러나 특성화를 이유로 대학마다 지나치게 다른 전형 요소를 적용하면 학생이 복수의 대학에 지원하기 어렵다. 수요자의 사정을 무시하고 대학이 일방적으로 전형 방법을 정하면, 입시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학생이 자신의 최고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학생이 복수의 대학에 지원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평가를 위한 산출물을 요구해야 한다.

4.2 전형 요소의 단순화

대입 전형제도가 지원자의 대학 수학 능력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중등교육의 목표와 무관하게 대학이 어떤 요소로 학생을 평가하여 입학시키느냐에 따라 중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나친 입시 경쟁 때문에 교과, 비교과를 막론하고 전형 요소에 포함되는 순간 그것을 위한 사교육과 학생 스스로가 아니라 제 삼자의 개입이 시작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특수목적 중학교 입시를 위한 초등학교 반장 선거 과열과 창의력 증진 학원을 상기하라. 입학 사정관의 눈에 들만큼 수준 높은 봉사활동을 하려면 부모가 나서서 봉사활동 거리를 찾아주어야 하고, 특별활동 점수를 올리기 위해 반장 선거가 과열되고, 특기 점수를 받기 위해 학원에 다녀야 된다면 전인적 평가를 위한 종합전형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은 피곤하고 경비는 더 많이 들고 지역과 계층 간의 불균등은 심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학력뿐 아니라 인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간단한 전형 요소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것이 입시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을 억제하는 방안이라고 본다.

평준화 이전의 고등학교 입시는 필기시험 하나로 당락을 결정했다. 주입식 교육이 대세이던 그 당시의 문제를 보면 ‘공습경보에서 경계경보는 어떻게 울리는가,

다음 악보가 나오는 음악의 제목은 무엇인가'와 같이 무조건 외워야 되는 문제도 많았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형편없는 이런 문제로 학생을 선발했으니 선발 오차가 매우 클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지도 않다. 1970년대 중반에 이런 문제로 시험을 봐서 그 당시 소위 일류 고등학교 중의 하나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 후 20년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니, 졸업생의 40%가 대학, 연구소, 의료계, 법조계, 행정부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 예를 드는 것은 고등학교 입시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전형 요소로 평가하더라도 대체로 같은 학생이 합격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어서이다. 어린 나이에는 하나를 잘하는 학생이 다른 것들도 잘하는 경향이 많은데, 아마 어릴 때는 적성이나 집중력보다 성실성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주입식 시험 외에 다른 요소를 같이 평가했다라면 선발 오차를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었을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발 오차를 조금 줄이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전형 요소를 적용하여 입시를 온 가족이 참여해야 되는 총력전으로 만들고 사교육을 끌어들이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평준화 이전에도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았지만 학습 부담이 지금보다 적었으니 자유 시간은 오히려 더 많았다. 암기식 시험 문제의 진짜 문제는 선발 오차의 과대가 아니라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창의력 저하다. 그러나 잠재력 평가를 목적으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겠다는 전인적 평가는 학력 평가보다 학생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더 많이 좌우될 수 있고, 한국적 상황에서 사교육을 더욱더 불러들임으로써 전인적 전형의 취지가 무색하게 학생들의 잠재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요약하면, 전인적 평가의 취지를 살리려면 전형 요소를 최소화, 단순화하는 것이 좋다. 그리하여 어린 학생과 그들의 가족이 입시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게 하지 말고, 자기 계발과 삶의 의미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이 잠재력과 창의력이 발현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길이다.

4.3 교과적 요소

교과적 요소는 학력이다. 학력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다. 그러므로 대입전형에서 학력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다. 비교과적 자료를 대입전형에서 평가하는 것은 지금의 학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잠

재력이 발휘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지, 학력을 무시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교과목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어야 하며, 전인 교육은 학교, 가정, 사회가 같이 해야 한다.

입학할 당시의 학력과 대학 성취도와 대학 졸업 후의 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오랜 시간에 걸쳐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입시에서 학력 평가가 비판 받는 이유는 학력만으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시험 성적 순서로 나열하여 기계적으로 선발하는데 있다. 학생을 상대 점수로 나열하면, 점수가 얼마가 되어야 합격 범위에 들어갈지 알 수 없으므로 무한 점수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교육이 잘 되어 학교 공부만 해도 충분한 학력을 얻을 수 있다면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을까. 고등학교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수험생을 성적 순서로 나열시키는 지금 입시 제도에서는 상대적 우위를 갖기 위해 여전히 사교육을 찾을 것이다. 자정을 넘겨서까지 하는 사교육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의를 듣는 시간에 비례해서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교육 효과를 믿지 않는 개인도 불안감 때문에 동요되지 않을 수 없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는 상황에서는 학교 성적이 우수하다고 학원에 가지 않으면 입시에서 불리해 질 수 밖에 없다.

대학 입학에 필요한 학력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학력이면 된다. 그러므로 대학은 지금처럼 학력 점수로 수험생을 나열하고 줄을 그을 것이 아니라,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시하고, 그 기준을 넘는 학력을 가진 학생은 모두 일 단계 평가를 통과시켜야 한다. 대학 수학에 필요한 최소 학력을 정하려면 대학은 중등교육과정, 대학의 교육 목표, 학생의 전형 자료와 입학 후 성취도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교과적 요소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고등학교 내신, 수능시험, 본고사를 들 수 있겠다. 이 중에서 대학별 본고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대학 교수가 단기간에 감금 상태에서 출제하는 본고사 문제는 어려운 경향이 있는데다, 출제 교수에 따라 해마다 난이도와 경향

이 달라지고, 대학마다 본고사 문제가 다르므로 수험생이 여러 대학에 지원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려는 학생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학력은, 수학능력 검사를 위한 전국 규모의 표준 시험과 고등학교 내신을 모두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하루에 실시하는 수능시험으로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고등학교 전 과정의 누적 성적인 내신에 더 비중을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자료의 의미를 살려서 평가에 이용하려면, 수능시험은 처음 취지대로 수학능력을, 내신은 교과 성적을 평가하는 기능을 살리는 것이 좋다. 정부가 주도하는 지금의 수능시험은 수학 능력과 학력 평가의 혼합이고, 무작위로 선정된 출제위원들이 단기간에 감금 상태에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수능시험의 취지에 맞는 좋은 문제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통합교과를 추구하는 수능 시험의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므로, 수능시험의 의도와 다르게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다. 이런 이유로 대학은 수능시험 성적을 불신하여 학력 평가를 위한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능시험 관리를 대학 연합체에 맡기고, 대학은 충분한 연구를 통해 수학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 시험을 개발해야 한다. 미국의 SAT주관 기관에서 발행한 안내서에는 ‘SAT 점수를 올리기 위해 첫째도 독서, 둘째도 독서, 셋째도 독서를 하라’고 되어 있다. 이 문구는 한국의 수학능력 측정시험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시사하는 점이 많다.

대입 전형에서 고등학교 내신을 평준화하면 입학한 다음의 학업 성취도와 내신 성적의 상관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워지므로, 내신 평가에서 고등학교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좋다. 지역, 계층 간 갈등을 키운다는 이유로 무조건 내신 평준화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덮어두는 것이다. 내신 성적 공개는 고등학교 교육 수준을 높여서 사교육 억제를 유도할 수도 있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 공개에 따른 소외 계층의 불이익은 입학 당시에만 특혜를 주는 내신 평준화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교육기회 불균등을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입학 뿐 아니라 입학 후에도 소외 계층의 학생들이 학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지역, 계층 간 차이에 의한 학력의 차이는 외국에도 있다. 미국의 SAT 성적도

부모의 소득, 직업과 상관없이 많지만, 미국에서 이것이 우리나라처럼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미국의 대학에서 SAT는 여러 전형 요소의 하나일 뿐이지 한국에서처럼 수능시험 성적에 의해 당락이 절대적으로 좌우되는 않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소외 계층의 학력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학생의 사회경제적 환경, 내신 성적, 수학능력 시험 성적, 대학 성취도, 대학 졸업 후의 성취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광범위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현행 입시에서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총점제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 대학에 들어와도 전공을 이수할 학력을 갖지 못한 학생이 많다는 점이다. 현행 입시제도에서는 총점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대학 전공과 관계없이 점수를 받기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이 많다. 이것은 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학문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입학 후 대학의 전공 이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대학의 전공 적성도 대입 전형에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미국의 SAT 2처럼 수능시험에 교과별 시험을 포함시키고 수험생이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응시하게 하거나, 일부 시행에 들어간 대학 선이수 과목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을 전공 적성 평가를 위해 고려할 수 있다.

4.4 비교과적 요소: 전인적 평가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싶지만, 잠재력을 무엇으로 측정하겠는가. 학생의 인상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 유전자 검사도 안 될 일이니, 결국 지금까지 학생의 성취한 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소위 전인적 평가를 위해 도입한 학생 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가 그것이다. 학생부의 비교과 항목에는 과외활동, 봉사활동 예체능 활동, 수상기록, 처벌 기록, 출결 기록 등이 있다. 그러나 학생부에 큰 비중을 두지 말 것을 권하고 싶다. 몇 줄로 된 고등학교 3년간의 학생의 외적 활동에 대한 관찰 기록이 어떻게 인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해 주겠는가. 학생부 점수는 암전하고 말 잘 듣는 학생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학생부가 입시에 위력을 발휘하게 되면 학생부 기록을 좋게 만들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는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며, 수동적이고, 사소한 것에 신경 쓰느라 소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학생을 만들어 낼 것이다.

예를 들면, 학생부의 과학전람회 수상 기록도 믿기 어렵다. 과학전람회 출품작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가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기 때문이다. 수상 기록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사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다. 국제 과학 올림피아드에 가보면 서양 학생들은 참가를 즐기며 장려상이라도 받으면 너무 좋아한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과학이 좋아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아 대학에 들어가려는 목적이 더 크다. 그러니 은메달에도 실망하여 우는 학생이 나오는 것이다. 국제 과학 올림피아드의 대표를 꿈꾸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고, 중학생이 되면 고등학교 참고서로 과외를 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대학교 교재로 공부한다. 이 학생들의 부모는 자녀를 올림피아드에 몰입시켜 국내외의 유명 대학에 보내려는 것이다. 2008년도 물리, 화학, 생물 국제 올림피아드 수상자의 46%가 수시모집을 통해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좋아서 하다 보니 소질이 발현되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아서, 숙된 말로 경시를 해서, 대학에 들어갈 목적으로 몰입 공부를 한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학생부에 기록된 학생의 활동은 절대 평가의 대상이지 정량화하여 점수순으로 학생을 나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대학 전형에서 객관성을 이유로 학생부의 기재 사항을 점수화하여 총점에 더하는 부조리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반장을 했으면 몇 점, 개근상을 받았으면 몇 점 하는 식이다. 이런 모순을 통해 학생부의 기록이 당락을 좌우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전인적 평가는 학생이 기본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확인하고 더 이상 고려하지 말 것을 권한다.

학생의 교양, 남을 배려하는 마음,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면 며칠씩 학생과 생활하면서 가까이서 대화하고 관찰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학생을 잘 아는 사람이 쓴 추천서이다. 그러나 추천서를 써 주기로 동의했다면 좋은 내용으로 써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교사가 많은 학생에게 일일이 다른 내용의 추천서를 써 주기에는 업무가 과다하고, 대학도 수많은 추천서를 읽고 평가하기 벅차다. 그러므로 추천서도 학생에게 크게 불리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다면 단순한 참고 자료로만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오랜 시간 동안 학생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일부 대학이 하고 있듯이 10분 정도의 면접으로 인성을 평가하고 점수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 10분 동안 학생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고 판에 박힌 대답을 들은 것으로 인성을 판단하여 점수를 주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과외활동, 봉사활동, 특기 계발, 예체능 활동, 수상, 처벌, 출결 등의 비교과적 요소의 문제는 이것들이 학력보다도 더 학생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그러므로 비교과적 요소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도 그럴듯한 봉사활동 기회를 찾으려면 부모가 나서는 경우가 많다. 과외활동도 부모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특기 계발과 예체능 활동에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은 경비가 든다. 대회에서 상을 받는 것도 학생 혼자서는 버거운 일이다. 그러므로 비교과적 요소가 모자란다고 불이익을 주거나 좋다고 과도한 이익을 주지 말아야 하며, 비교과적 요소는 통상적인 기준을 충족하는지 참고하는 정도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4.5 논술

내신과 수능시험 점수도 기준을 넘으면 전원 통과시키고, 비교과적 요소도 기준을 넘으면 전원 통과시킨다면, 무엇으로 정원에 맞게 학생을 선발할 것인가. 나는 그것이 바로 읽고 글쓰기, 즉 논술이라고 본다. 학생의 종합적인 자질을 대학이 주관적, 정성적으로 판단하여 당락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한국적 상황에서, 무엇인가에는 점수를 주어 선을 그어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읽고 글쓰기 능력이라고 보는 것이다.

읽고 쓰기를 잘 하는 것이, 더구나 오늘날의 소위 지식기반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교육적 측면에서, 읽고 쓰는 연습은 사고력과 의사 표현에 도움을 주고, 학생의 자연스럽고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 창의력과 상상력 개발에 도움을 주며,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는 읽고 쓰는 능력이 수학능력 과도 상관관계가 클 것이다. 읽고 쓰는 것은 학원에 가지 않고 학교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물론 논술 학원이 벌써 많다.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대학이 아무리 묘수를 내더라도,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믿음과 이기심 때문에 사교육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임은 논술 학원이 이미 많은 것에서도 증명된다. 그러나 읽고 쓰는 능

력은 학원에 가서 짧은 시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습득되는 것이며, 개인의 사고력, 철학, 인성과 같은 종합적인 자질에 관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읽고 쓰는 능력은 교과, 비교과적 요소에 비해 사교육의 영향, 즉 학생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훨씬 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학원에 가서 읽고 쓰는 연습을 더 하는 경우에도, 밤잠을 설치면서 하는 학력 과외와 달리 읽고 쓰는 연습 때문에 학생의 삶이 파탄이 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읽고 쓰기는 많이 할수록 좋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입 전형에서 논술의 비중을 높일 것을 주장한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지식이 있는지 찾을 수 있고 그 지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읽고 쓰고 생각하는 능력이 지식기반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능력이라면, 수학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한 다음에 최종 결정은 읽기와 쓰기 능력에 근거해도 무난할 것이다. 그러나 학력과 비교과적 요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들을, 다시 논술 점수로 줄을 세워 선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논술 점수가 합격 경계선에 있는 학생은 내신, 수능시험 성적, 비교과적 요소, 추천서, 논술 점수를 모두 고려하여 입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인문계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있지만 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이공계 논술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지금 일부 대학이 제안하고 있는 이공계 논술의 형태는 논술이 아니라 이공계 본고사를 대체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대학들이 제시한 이공계 논술 문제에 답하려면 전문적인 이공계 교과 지식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수험생의 개성있는 주장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정답을 찾게 만드는 주관식 이과 시험 문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논술 시험이 정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문과와 이과의 구별 없이 논술 시험은, 교과 지식을 요구하는 주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국어의 읽기 쓰기 공부를 충실히 했는지 평가하고 나아가 수험생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사고력이 깊은가를 평가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물어보아야 한다.

대입 전형에서 논술로 당락을 최종 결정하자는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프랑스 고등학생의 20~30%는 엘리트 대학 시험 준비를 위해 철학 논술 시험인 바칼로레아 시험 준비를 한다. 프랑스뿐 아니라 읽고 쓰기의 중요성은 전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미국 대학에서는 전일부터 신입생의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여 기준 미달인 학생은 글쓰기 강좌를 듣게 해왔다. 미국에서는 또한 2005년부터 SAT 1에 글쓰기 시험을 추가했다. 한국에서도 1986년과 87년에 객관식 학력고사를 보완하기 위해 논술 시험을 실시하고 3~5%를 반영했으나 채점 공정성 시비 때문에 2년 만에 폐지했다. 미국에서는 한 해에 200만 명이 넘는 학생이 응시하는 SAT 1 시험의 글쓰기를 채점하고 있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도 엄격하고 자세한 채점 기준을 적용하여 채점의 공정성을 유지한다. 한국에서도 미국이나 프랑스에서처럼 공정한 논술 채점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경제 수준은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 대입 전형 때문에 읽고 쓰기를 잘 하려고 사교육을 받는다면 오히려 권장할만하지 않은가. 2008년에 한국 사회가 지출할 사교육비 30조원의 십분의 일만이라도 읽고 쓰는 훈련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몇 년 안에 세계적인 문화강국이 될 것이다. 경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기반 조건 가운데 문화만큼 중요한 것이 있겠는가.

4.6 대학과 교육 기회의 균등

우수한 학생은 계층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존재하는 것이 상식이다. 만일 불리한 지역과 계층에 속한 학생에게 동등한 경쟁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있는 개체수가 적은 집단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니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기회가 낮아진다. 이것은 교육을 통한 사회 정의 실현에도 위배되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손해다. 앞에서, 학생의 내재적 요인을 배제하면 대학 진학에서 사교육의 효과는 별로 없다고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통계에 의하면 부모의 소득이 높고 부모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가정의 학생이 대학 진학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가정환경이 유리한 학생들이 상위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사교육 때문이 아니라면 교육 환경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지역과 계층 간의 격차는 경제력 차이에 의한 사교육의 유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에 따른 교육 환경의 차이와 교육 기회의 비대칭 때문이다. 따라서 소외 지역과 계층의 학생에게 선발의 기준을 낮추어 배려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누리지 못한 교육 기회의 불균등을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외 계층을 배려하더라도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할당은 지양하고, 기회 불균등에 의한 차별을 보상하고 지역의 인재를 균형있게 교육시킨다는 의미

를 살릴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

소외 계층 학생을 위한 균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은 입학 할 때만 정원을 할당하거나 선발 기준을 낮추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온 다음에도 계속 되어야 한다. 배려 차원에서 입학시킨 소외 계층의 학생이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불리한 교육 기회가 대학에 들어온 다음에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쌓인 학력의 차이는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이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상태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못한 학생의 출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 결론

지금의 입시 문제는 높아진 국민의 요구에 맞는 대학이 많지 않다는 것, 특정 전공에 지원자가 몰린다는 것, 이 때문에 입시가 과열되어 사회경제적 갈등이 심각해졌다는 데 있다. 과열된 대학 입시는 무한 경쟁을 초래하여 중등교육을 훼손되고 학생들의 잠재력을 말살하여 개인의 능력과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교육을 장기 투자 수단으로 보는 국민의 이기적인 무한 경쟁도 입시가 과열되는 원인의 하나다. 이와 같이 대학 입시 문제는 원인이 복잡하고 이해 당사자가 많으므로 전형 제도의 보완과 함께 국민의 의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해결에 이를 수 있다.

정부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확대하고 일반 고등학교도 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입시 문제의 발단은 대학의 병목 현상에 있기 때문에,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늘리고 고등학교 선택을 자유화한다고 입시 부조리가 해결되지 않는다. 병목이 대학에 있는 까닭에 대학 입학이 중등교육의 지상 목표가 되었고, 이 때문에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까지도 대학 입시를 위해 상당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에 200개나 되는 4년제 대학이 있음을 감안하면 대학 병목 현상은 대학 수가 적어서 생긴 것은

아니다. 대학에 지원할 때 학교 이름보다도 취업에 유리한 전공을 고려하는 학생이 많아졌고, 국내의 일류 대학보다 외국의 명품 대학을 선호하는 학생도 많아진 것을 보면, 대학 병목 현상이 소위 지금 일류 대학이라고 불리는 몇 개의 특정 대학 때문도 아니다. 대학입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학이 분야별로 특화하고 지역마다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권한 만큼 학생도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대학 사이의 경쟁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고등교육 수요도 충족될 수 있다. 미국 대학 전형에서 입학 사정관의 주관적 판단이 공정성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학이 많기 때문에 한 대학에 못 들어가도 다른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정부가 공정성을 내세워 입시에 관여해왔지만 중등교육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시로 인한 사회 갈등과 사교육 문제는 오히려 더 커졌다. 그러므로 입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은 문제의 발단인 대학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다. 수능시험은 학생 선발과 교육의 당사자인 대학의 연합체에 관리를 맡기고, 대학을 특화하고 지역마다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드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교과서 검정의 예를 보자. 정부는 정부 주도로 교과과정을 만들고 교과서 검정에서 교과과정의 준수를 가장 중요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교과서는 저자와 출판사가 달라도 대동소이하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과과정을 만들고 교과서 검정에 적용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주도하는 수능시험의 공정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때문에 한국의 교과서는 저자의 개성을 살리지 못하고 질이 떨어져, 학교 수업에서 교과서는 뒷전이고 참고서가 교과서를 대체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대학은 학생 선발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잠재력을 평가하면서 동시에 중등교육의 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입전형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전형 방법이 학생이 대학에 들어온 다음과 졸업한 후의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지원자의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전형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대입 전형은 소외 계층의 교육 기회 불균등을 보상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보장하고, 학생의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법학 대학원, 의학 대학원 등의 신설과 함께 고등교육을

전문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풍조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대입전형은 대학 교육의 정상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시험의 상대 성적으로 선발하면 수험생은 비교우위를 높이기 위해 무한 학력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학 수학 능력만 갖추었다면 학력에 의한 상대 비교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비교과적 요소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이것도 기준을 만족했는지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만일 입시의 객관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요소를 이용하여 수험생을 상대 평가해야 된다면, 학력이 기준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와 쓰기 능력을 측정하여 선발하는 방법이 가장 교육적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대학은 학생 선발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 이상으로 엄격한 학사 관리로 졸업을 어렵게 만들어서, ‘들어가고 보자’는 입시 지상 풍조를 없애야 한다. 그렇게 하여 대학은 취업을 위해 졸업장을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취업을 위해 공부하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 어느 대학에 입학했는가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하는 어린 나이에 평생이 결정되게 하는 것은 가혹하지 않은가. 지금까지 언급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좋은 대학을 지역마다 많이 만들고, 웬만한 능력을 가진 학생이면 입학시켜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자’라고 할 수 있겠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입시 과열을 낮추려면, 대학 입시 한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생애의 어느 시기에는 필요가 생기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입 전형제도를 유연하게 만들고 평생 교육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한국인의 평생교육 참여는 대단히 낮다. 29세 이하인 한국인의 중등교육 이수 비율은 95%로 아주 높지만, 35세 이상에서 대학 등 재교육 기관에 등록된 비율은 세계 평균에 비해 아주 낮다. 이것은 평생 교육을 위한 대학문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평생 교육을 위한 개방대학을 대중화할 필요가 있다.

입시 제도와 대학만 바뀌어서는 부조리가 해결되지 않는다. 일류대학에 대한 사회의 맹목적인 편견도 바뀌어야 한다. 대학입시가 과열되는 이유에는 대학이 너무 많고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은 것에도 있다. 그러므로 맹목적

인 대학 진학에 의한 교육비 낭비와 대학 졸업자의 대량 실업사태를 막으려면, 졸업 후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실업학교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기술인에 대한 대우와 사회 인식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학력 저하와 국가 경쟁력 저하를 걱정한다면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확대하여 어린 학생들을 고등학교 입시 경쟁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 대학에 있음을 감안하여 대학을 특화하고 좋은 대학을 지역마다 많이 만들어 대학의 학생 선발권과 함께 학생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해주고, 대입 전형 절차를 효과적이면서 단순하게 만들어 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억제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도 어린 아이들에게 무한 입시 경쟁을 시키는 것이 그들의 좋은 품성과 잠재력을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에도 해가 되는 행위임을 알고, 교육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참고문헌

- 사무엘 김(2008), 「아시아계 미국 이민자 일세대와 이세대의 교육 갈등」, 컬럼비아 대학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 성기선 외(2007), 『대학입시와 교육제도의 스펙트럼』, 학지사.
- 김동석(2006), 『한국의 교육선발과 경쟁』, 문음사.
- Jacques Steinberg(2002), 『The Gatekeepers』, Penguin Books..
- 한준상(2007), 『교육 자본론』, 학지사.
- 최형재(200&), 「사교육의 대학 진학에 대한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 박재원 외(2008), 『대한민국은 사교육에 속고 있다』, 김영사.
- 오치선 외(2005), 『여러나라 영재교육』, 솔학.
- S. Johnsen(2005), 『Identifying Gifted Students』, Prufrock Press.
- 전동렬 외(2007), 「과학영재 판별과 선행학습」,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 김기현(2007), 「청소년 사교육 이용실태 및 효과에 대한 중단 분석」,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University Admission Process: Student Selection by University or University Selection by Student

D. Jeon

Too much competition in the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in Korea is disturbing a normal educational system. In my opinion, the reason for the irrational competition is rooted not only in the competition to secure better future through higher education but also the lack of fairness and greed of the individual. Th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ease the situation without any success. Not only that the government policy is too much lean toward the objectiveness of an entrance examination test that the test has lost its true meaning to select an adequate candidate. It is only serving a purpose of cutting out the number of applicants according to the quota. Given the situation, students begin to prepare for the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as early as 4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They go to private learning centers to prepare for the test to enter learn-center-for-gifted-students and science or special purpose high schools. Too much stress, too much brain squeezing from the early age, loss of self-study ability and dependence on one's parents are harming and destroying the students. Their performance at the early age may look great, but sadly it is not their real talent but merely a result of hard training and obedience. To remedy the situation and turn the education to the right track, we urgently need an action. We must remove the fixed rank among similar-looking universities without its own character and make each university concentrate on its own specialty area. And these universities must be distributed uniformly over the country. In this way, students can have equally the right to select a school as much as the university has a right to select students under the present situation. The selection process is also

important in that it characterize the subjects and contents of the secondary school teaching. Humanity education is important, but we must not forget that the scholastic ability is most important in school teaching. I propose that we must quit drawing a line according to the student's test score but we must have every student with required scholastic ability pass the first screen and then test their reading and writing ability for the final screening.

key words: Admission process of Korean universities,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pecial high schools of Korea, private learning, reading and writing skill.

표제어: 대학 입시, 특수목적 고등학교, 사교육, 사교육비, 학생 선발, 학교 선택, 수학능력시험, 읽기 쓰기 능력